

[서식 예] 이혼청구의 소(기타 중대한 사유)

소 장

원 고 ○ ○ ○(○ ○ ○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주소 : ○○남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길 ○○

등록기준지 : ○○군 ○○면 ○○길 ○○

피 고 △ △ △(△ △ △)

19○○년 ○월 ○일생

주소 : 원고와 같음

등록기준지 : ○○시 ○○길 ○○

이혼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는 19○○년 ○월 ○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.
2. 원고는 피고와 혼인전 당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에 방울토마토 및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여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38세의 미혼남이었으며 결혼소개소에서 만난 피고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27세의 여성이었습니다.
3. 원고는 신혼초부터 피고와의 나이차이(11세)와 피고의 농사경험이 없는 점 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도 다 참아가며 피고를 위해 살아갔으나 피고는 혼인

후 얼마 있지 않아 농사일이 싫다며 직장을 얻는다하여 외출이 잦았고 생
이 아닌 본인 개인적 물품을 시내 백화점에서만 구입하는 등 사치가 심했
다.

4. 신혼초부터 원고의 요구에도 부부관계를 자주 거절해오던 피고에게 손자를 기
대하시는 원고의 할머니께 미안하고 또한 본인도 자식을 두고 싶어 “혹시 당
신 피임하느냐?”라고 조심스레 물으니 피고는 “당연하지 않느냐. 당신처지에
무슨 아이를 낳느냐, 나는 내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럽게 키우려하는데
그럴 능력이나 되느냐?”며 오히려 당연한 듯 말해 원고를 황당하게 만들기도 하
였습니다.
5. 이러한 생활을 근 5년 동안 하면서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자녀를 두지 못했으
며,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아내로서의 도리,
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전혀 행하지 않고 근래에 피고는 읍내 사진관에서 사진현
상 보조업무를 하며 읍내 자신의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곧바로 사진관
으로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, 믿고 싶지 않지만 사진관 주인인 소외 □□□와
업무외적인 만남을 목격한 주변인도 상당하여, 할머니를 실망시켜드리고 싶
지 않은 마음에 끝까지 참고 생활하려 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
운 상황에 이르러 본 소를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혼인관계증명서 |
| 1. 갑 제2호증 | 주민등록등본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 고 ○ ○ ○ (인)

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제 출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제 책 기 간	※ 아래(2)참조
제 출 부 수	소장원본 및 부분 각1부	관 련 법 규	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
불 복 절 차 및 기 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		
비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20,000원(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· 송달료 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 		
이 혼 사 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.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		

※(1) 제 출 법 원

1.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2.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

※(2) 제 책 기 간

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: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
2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: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.